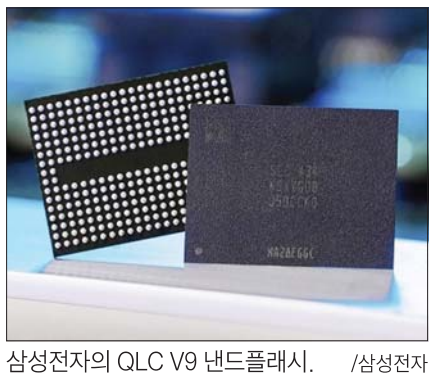
中 수요 둔화·美 규제… 한달새 낸드값 15% '뚝' 업황 우려

中서 웨이퍼 현물 일주일 새 9.19%↓
일부 범용낸드 고정거래가격 보합
AI 서버용 낸드는 수요확대 이어져
삼성·SK 수익성 영향 제한적 전망


삼성전자의 QLC V9 낸드플래시.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현물가격이 한 달 새 15% 이상 하락하면서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미국의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 수요에 힘입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지난 6일 공개한 메모리 반도체 현물시장 자료에서 낸드 TLC 512Gb 현물가격은 16.2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16.7%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TLC 1Tb 가격도 15.3% 떨어진 25.9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2주간 하락률은 각각 13.1%, 12.8%다.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부진이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 10월 28일 일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판매 부진으로 광군절을 앞두고 할인 판매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26일 기준 512Gb TLC 웨이퍼 평균 현물가격은 일주일 새 9.19% 하락한 16.883달러를 기록했다.

일부 범용 낸드 제품의 고정거래가격도 상승세가 멈췄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0월 메모리 카드·USB용 128Gb MLC 낸드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30.61달러로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5년 1월부터 이어진 21개월간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도 지난 7월 4.5%에서 지난 8월 1.3%, 지난 9월 0.4%로 낮아졌다.

반면 AI 서버용 낸드 시장에서는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낸드 비트 출하량에서 기업용 SSD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집계됐다. 지난 2025년 2분기 26%에서 2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소비자용 낸드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기업용 제품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을 우선하면서 낸드에서는 공정 전환과 제품 구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은 25%로 지난 2024년 2분기 32%에서 하락했지만 세계 1위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중심으로 기업용 SSD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솔리다임의 낸드 비트 출하량은 전 분기보다 40%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고성능·대용량 기업용 SSD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용 낸드 수요의 변수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꼽힌다.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규 시설의 인허가와 착공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와 중국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메모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면 기업용 SSD 수요가 줄어 낸드플래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어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낸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계약도 체결한 만큼 향후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당분간 양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대만 TSMC, 10월 매출 25조… 전년비 60% 급증

누적매출 184조, 전년비 43% 상승
3분기 고성능컴퓨팅 매출 22%↑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가 10월 매출 25조원에 육박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매출을 기록했다.

TSMC는 10월 연결 매출이 5868억 9000만 대만달러(약 24조390억원)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7%, 전월보다 14.7%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매출은 약 4조 4856억 대만달러(약 183조73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43.3% 늘었다. 작년 연간 매출을 웃도는 규모다.

앞서 공개한 3분기 실적에서는 인공지능(AI) 가속기 등을 포함한 고성능컴퓨팅(HPC) 매출이 전분기보다 22% 늘어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했다.

TSMC는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첨단 공정 수요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매출 전망치를 523억~543억달러(약 70조1000억~72조8000억원)로 제시했다.

3분기 웨이퍼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3나노 공정이었다. 2나노 공정 비중도 2분기 3%에서 3분기 8%로 높아졌다. TSMC는 지난해 4분기 양산에 들어간 2나노 공정의 생산량을 대만 신주와 가오슝에서 늘리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TSMC 고객사인 AMD도 AI 가속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97% 늘었다고 밝혔다. AMD는 7나노미터(nm) 이하 공정을 적용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용 웨이퍼를 모두 TSMC에 위탁 생산한다.

이같은 글로벌 AI 설비 투자 확대는 국내 반도체 수출도 끌어올리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1면 '세금신고·문의전화…'서 계속

기업·기관 재직자 17% 업무에 에이전트 활용

부이, 큐, 인스팅트는 초대제로 베타 운영되고 있다. 초대제 서비스가 늘어나며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대장 링크를 구하고 공유하는 소통도 늘어나고 있다.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하는 길도 다양해지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지난 9일 K-엑사원 2.5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무료로 공개했다. 오픈소스 에이전트 도구인 헤르메스와 오픈코드에 모델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깃허브의 랭그래프·크루AI·폰 하네스·K-스킬 같은 도구를 활용해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다.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 등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도구와 에이전트 생성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개발 진입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채팅방에 초대해 멀티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용 확산은 아직 초기 단계다. EY한영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내 소비자 1000여 명 중 86%는 최근 6개월 안에 AI를 사용했지만, 자율형 AI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였다. 삼성SDS가 지난 8월 공개한 조사에선 국내 기업·공공기관 재직자 1750명 중 17%가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삼성SDS 조사에서 에이전트 이용 우려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사내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52%)이었다. 에이전트가 더 많은 일을 맡을수록 어떤 정보와 권한을 제공하고, 사람이 언제 개입할지, 문제가 발생할 때 구제 방법과 책임 소재가 과제로 남는다. /김보민 기자 kbm@

